

#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 곳곳서 추모행사 열린다

### 광주추진위, 12-16일 분향소 운영·기억문화제 등 개최 마을별 피켓팅·현수막 게첨·촛불 행사 등 ‘기억 행동’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린다.

9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1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며 이날 28일까지 관련 행사들을 연다.

시민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곳에서 추모객들은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메시지 전하기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다.

13일 오전에는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가 전개된다.

행사는 ▲양림미술관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 등 3곳에서 각각 출발한 후 동구 5·18민주광

장까지 행진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청소년기억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광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세월호 기억 무드등·기억촛불·안전팔찌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안전사회를 약속하는 전시·공연들로 꾸러진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광주지역 예술인들은 5·18민주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참사를 추모하는 버스킹 공연, 전시·체험 부스 등을 운영한다 오후 7시에 한 데 모여 단체공연을 펼친다. 이날 광장에서는 추진위 주관으로 ‘세월호참사 10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일주일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 외부에 희생된 아이들 모습이 담긴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기 광주 기억문화제’도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20일 세월호 희생

자들을 추모하는 영화 ‘세 가지 안부(그 레이저, 흔적, 드라이브97)’를, 광주극

장은 28일 ‘바람의 세월’을 상영한다. 광주 마을 공동체들은 개별 또는 연

대하며 ‘기억 행동’을 펼친다.

수원촛불은 13일 오후 4시16분 수원 동 하나로마트 뒤 산책로에서, 남구촛불은 15일 오후 5시 주월동 푸른길공원에서 기억문화제를 개최한다.

북구마을연합회는 15일 북구청 앞에서, 동구촛불은 16일 5·18민주광장 시계탑 앞에서 밝혀지지 않은 진상의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 활동을 전개한다.

화순촛불은 13-21일 화순읍 광덕로 전체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 게첨 활동을 한다.

이 밖에 문산·양산·임곡·용봉·등운마을 등도 참사 당일인 16일 촛불 행사를 갖는다.

한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금호·운천마을은 각각 서구문화센터와 운전저수지 앞에서 매주 월·화요일에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은정기자

## ‘日 강제노역’ 손배소 5년만에 변론 종결

### 피해자 2명 유족 JX금속 상대 제기... 오는 6월25일 선고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가족을 대신해 유족들이 JX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약 5년 만에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JX금속(옛 일본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는 옛 일본광업 소속으로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A씨의 유족 6명과 B씨의 유족 4명이다.

A씨는 1945년 일본 도치기현 기도가

사와 광산으로 끌려간 뒤 약 6개월 동안 광부로 강제노역했다.

B씨는 1942년 연행된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 광산에서 10개월간 광물을 맨몸으로 나르는 등 고된 노동을 했다.

A·B씨 모두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강제노역을 하며 얻은 후유증에 시달린다 각각 1980년, 1982년 사망했다.

이들을 대신해 유족들은 지난 2019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등 일본기업의 비협조로 장기간 공전됐다.

재개된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과거 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A씨의 경우 제출된 증거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피해 당사자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오기”라며 “A씨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항변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오는 6월25일 진행된다. /안재영기자

## 광주기상청 시스템 오류에 ‘메일 폭탄’ 해프닝

광주지방기상청이 언론사·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는 예보 메일·팩스 서비스가 ‘시스템 오류’로 1시간여 동안 폭탄은 내용이 계속 발송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부터 정오까지 ‘대기

질예보’ 메일 31건이 2-3분 간격으로 발송됐다.

통상 대기질예보는 매일 오전·오후 각각 두차례 발송되는데, 갑자기 메일이 쏟아지면서 수신자들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우려하며 내용들을 분석했으나 모두 같은 것

로 확인됐다. 수신자들은 뻘뻘하게 만든 ‘메일 소동’에 대해 기상청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메일이 수신됐음에도 프로그램이 인식하지 못하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보내는데, 오류로 인해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는 것이다. 시스템 오류는 이날 정오를 넘긴 뒤 복구됐다. /정은정기자

## ‘90억대 보조금 편취’ 사립대 총장 검찰행

### 교직원 4명도...유령 학생 등록 등 재적 조작 재정지원대학 선정

학생을 허위 등록하고 재학생의 재적 현황을 조작해 재정지원대학에 선정, 90억원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남 한 사립대학교 총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

는 전남한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 등 5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정부의 ‘대학교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자 지난 2019-2022년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하는 등 신입생 200여명, 재학생 150여명의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당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고 특수목적재정,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90억원 상당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2월 “교육부 평가를 위해 학생을 허위로 등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무안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1년여 간의 수사 동안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보며 검찰에 송치했다. /안재영기자

## ‘감방 동기’와 강도질 모의 40대 징역 5년

### 차량 등 제공...보이스피싱 가담도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동기들과 출소 후 강도 범행을 모의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특수강도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간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감방 동기 2명과 출소 후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도움을 받은 감방 동기 등은 실제로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국제전화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재영기자

## ‘방문 침술’ 60대여 벌금 300만원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침을 놓는 등 의료 행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같은 해 4월27일까지 5회에 걸쳐 나주시에 소재한 B씨의 사무실을 찾아 “탈모 및 허리 통증 치료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며 B씨의 두피와 복부 등에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